# 광양·여수항만공사 빚더미 출범 우려

## 컨부두공단 폐지땐 막대한 부채 떠안아
## 대체항만 계획도 없어 경영악화 불보듯

2010년부터 여수·광양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공사 출범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여수·광양시와 여수해양수산청 노조가 발끈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컨부두공단의 기존 채무 가운데 상당액을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여수세계박람회로 인해 폐쇄되는 여수 신항의 대체항만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설립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지난 1990년 설립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과 인천·울산이 항만공사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컨부두공단법 폐지를 앞두고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한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윤근 의원(광양)의 대표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입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폐지되는 컨부두공단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공사를 2010년 3월2일까지 설립하도록 돼 있다.

컨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항만공사가 포괄 승계하되, 컨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눠 인수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국가가 운영주체인 컨부두공단의 총 채무 1조1천800억원 가운데 4천200억원에 대해 국가가 2013년가지 분납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항만공사로 넘겨지게 돼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이 수정없이 통과되면 7천400억원대의 채무를 내년에 출범할 항만공사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양·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은 "정부가 진 엄청난 빚을 지방항만공사에 떠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만공사가 빚을 안고 출발할 경우 향후 항만 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설상가상으로 대체항만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공사가 신설될 경우 수익사업 대상이 없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항만이 없으면 항만공사의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더욱이 대체항만이 조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해양엑스포 이후 광양항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공사 출범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해수청 노조 관계자도 "해당의원이 여수·광양시나 해수청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또는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의한 것이 문제"라며 "원활한 항만운영과 활성화 방안이 없는 한 해수청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윤근 의원측은 "컨부두공단법이 폐지돼야 항만공사법을 적용할 수 있어 관련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부채문제는 국회 관련상임위에서 심의와 조정을 거쳐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청수기자 pyj4079@

**대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주관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에 참가한 서울 이화여대 동문 40여명이 강진 영랑생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암농협 RPC, 청자박물관, 다산초당 등을 돌아봤다. 〈강진군청 제공〉

# 강진, 밀 생산농가 안정적 지원 나서

## 郡-의회, 국산밀 육성조례 제정

강진군이 오는 2012년 쌀보리 수매제도 전면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체 소득원을 위한 관내 국산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지원대책에 나선다.

강진군과 강진군의회는 최근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산밀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국산밀 생산농가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저장, 가공·유통 등 밀 생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전문 밀 가공업체인 SPC그룹 산하 (주)밀다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국산밀 판매처를 확보한데 이어 국산밀 생산의 안정화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주)밀다원과 40kg 기준 일반밀 3만4천원, 무농약밀 4만2천원, 유기농밀 5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억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진하는 강진 밀재배면적은 전체 350ha로 지난해보다 190ha가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600ha 규모로 늘어날 계획이다.

군은 기술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 김학신 맥류박사를 초빙, 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일 밀의 품종특성 및 재배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까지 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원했으나, 계약물량이 외부로 이탈되는 것을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수확물을 출하하는 포대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고흥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포인트제' 시행

고흥군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일반가정과 공동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부문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시킨 온실가스량 만큼 포인트로 환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전기·수도의 참여시점 기준 과거 2년간의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10gCO2(전기 424gCO2/Kwh, 수도 332gCO2/㎥)를 1point로 3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군 환경산림과나 읍·면사무소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50Kwh)의 10%를 절감할 경우 연간 약 17만1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활동에도 직접적인 기회가 된다"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전남 벼 건조·저장능력 향상된다

## 총사업비 116억 투입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충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이 크게 확충돼 도내 벼 건조능력과 저장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확기 고품질 쌀 생산과 수확기 벼 흡수처리를 위해 RPC가 산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RPC 시설 확충 대상지역은 여수시 등 12개 시·군의 24곳으로 통합RPC 2곳, 증설 13곳, 저온저장고 설치 9곳 등이다.

여기에는 연말까지 총사업비 116억5천만원이 투입돼 벼의 건조.저장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시설 확충사업의 자부담은 통합RPC와 저온저장 시설의 경우 40%, 증설 RPC는 50%이며 나머지는 국비와 도·시군비로 지원된다.

RPC 시설이 확충되면 도내 벼 건조능력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66.5%로 확충되고 저장능력도 작년 34%에서 올해 36.5%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쌀 계약재배 확대와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쌀 확대 등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RPC가 단순히 창고역할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내 쌀 생산과 유통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여수박람회 지원시설 지방세 감면

## 道, '감면조례' 개정…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전남도는 4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준다. 또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면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엑스포의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며 "다양한 대책을 통해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목포시 내년 42개 국비사업 탄력

## 1,551억 정부예산 확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목포시의 국비 예산 확보액은 당초 중앙부처 반영액 1천6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된 42개 사업 1천551억원으로 확정돼 지역 현안사업 조기완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정종득 목포시장이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얻어낸 성과다.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 중 주요 SOC 사업은 목포대교 700억원, 목포신항 개발 150억원, 북항개발 139억원, 목포항 정비 88억원, 대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6억원 등 총 10건 1천141억원이 확정돼 당초 반영액 671억원보다 470억원 증액됐다.

관광문화 분야의 경우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30억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 25억원,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 총 11건 115억원으로 30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2건 1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건 46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4건 85억원,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4건 17억원, 환경부 소관 3건 35억원, 산림청소관 1건 13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옥과초 총동문초대회장에 오창수 광주대 교수 선출

곡성 옥과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2일 본교 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초대회장에는 오창수 광주대학교 공대교수〈사진〉, 수석 부회장에 박길주 (주)케이엠피 대표, 부회장 박용순 하이마트상임감사, 박상철 옥과농협 조합장, 송현호 아주대학교 부총장, 최철호 (주)부성대표, 권희석 하나투어 대표, 홍성렬 아름실내건축대표, 박상렬 동양OA퍼니처 대표 등이 선출됐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